

어떤 것이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19면에서 계속

생김도 다르고 또 생활해 나가시는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그 법은 똑같지만 생활 자체를 해 나가시는 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시는 분이 있고 저렇게 해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걸 잡숫고 싶어하는 분이 있고 저걸 잡숫고 싶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데에 매달리지 마시고 아주 지극하게 일임해서 놓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의 참상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이 생긴다고 해서 '이거 망상이니까 끊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왜하면 망상이 생기고 어떠한 생각이 나는 것은 유생 무생이 다 쉬는 사이 없이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다 잡재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단이 돼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먹어 본 것은 언젠가 또 먹고 싶어서 생각이 나듯이, 본 것도 언젠가 또 생각나듯이... 그러니까 항상 생각나는 그것은 잡재의식의 작용입니다. 바로 우리 의식세계의 계발된 어떠한 유동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나결함 그것이 나온 거기가 바로 놔 버리세요. 자기가 색(色)이자 공(空)이고 공이자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바로 자기 실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실상이 공이니까 공에다 모든 것을 놔 버리세요. 믿고, 진실하게 믿고, 믿지 않으면 놔 버릴 수가 없어요.

믿어야 열쇠를 맡기죠? 믿지 않으면 열쇠를 맡길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내가 '잡나'인 주인공을 진실로 믿는다면 몸이 아프고 괴로워도 거기를 믿고 맡길 수가 있죠. 주인공이라는 그것 자체도 이름이고 실(實)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실상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인데 바로 거기가 놓아 버린다면, 믿고 놓아 버린다면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차가 있고 기름이 있어도 차는 운전수가 끌고 다닌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차와 운전수와 기름이 삼합(三合)이 되어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공존하니까 색이 공이자 공이 색이다 하는 거고 그렇게 공존하는 것을 공이라고 할 때 거기가 물락 놔 버리면 그대로 공존돼서 바로 일체 유생 무생이 한데 합친 그 능력의 의사가 되니 나는 손을 까딱 안 하고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당하는 거지 누가 가난을 주고 했어 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 말에 어느 부자가 복을 지은 거라고는 동네에서 누가 어린이에 낳는 데 고작 할 단 준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자가 죽어서 가 보니 부자 복(福) 창고에 질 한 단밖에 없었던 셈으로 그런 마음을 썼으니 질 한 단만 있을 수밖에

요. 자기가 준 대로, 한 대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활을 해 보시겠지만 수많은 사람한테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또 안 당한 사람도 있고 사기를 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인공에 놓는, 방화작 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은 나중에는 잡재의 감응이 와서 그걸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그럴 겁니다. 또는 안 그런다 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한다 하는 마음조차도 없이 슬그머니,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저절로, 가난도 면할 것이고 병도 물러날 것이고, 자기의 뿌리로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데에

매달리지 마시고

아주 지극하게 일임해서

놓을 줄 아셔야 합니다

”

외롭게 혼자인 것만 같아도

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님처럼 훌륭한 분을 만났는데도 공부가 부족해서인지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외롭고 이 세상에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외롭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욕심이겠지만 영원토록 스님께서 저희를 곁에 머물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답 우리는 지구라는 주머니 속에서 항상 같이 이 한자리를 하기에 떠났다가도 다시 와서 만나곤 합니다. 이렇게 만나잖나 만나는 진리를 참구하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또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한답니다. 우리는 혼자서 못 살아요. 물질계에서도 혼자서 못 살지만 정신계에서도 혼자서 못 살아요. 그 도리가 다 그러하죠.

우리는 때로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세상에 나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나.' 하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축생이나 아귀나 모든 미생물까지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미 그렇게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 걸 왜 한탄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좀 지혜가 있고 능

할 수 있는 쪽이 넓으면 좀 낮게 지내고, 쪽이 좁고 그릇이 작으면 아주 피곤하게 살고 이것뿐이지, 그렇게 돼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려 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식구들이 다 부왕이 나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자식이 하나 나가서 '내가 죄를 걸머지더라도 할 수 없다.' 그러곤 그냥 훌쩍 왔어요. 훌쩍 왔는데 그게 이 보이는 데서는 큰 죄라고 데려가서 가두겠죠. 그러나 부처님 법에서는 '아, 참 그 래도 지혜가 있어서 그거라도 훌쩍서 먹어 살렸으니 너 참 장하다.' 외려 이래 준다고요. 꼭 맞혀서 도대체 오글락노글락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도둑질을 정말로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넓은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그런 거를 갖다가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마음이 좁으나 넓으나에 따라서... 마음은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입니다.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악하게도 쓰고 선하게도 쓰고 뒤죽박죽이 되죠. 그런데 뒤죽박죽하지 말고 원체대로 살아라. 진짜 착을 두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그릇을 내가 파악하고 건너뛰어라 이거거든요. 물을 건너뛸 때에도 내 다리가 그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봐서 건너뛰어야지, 개천은 넓은 데 내 다리는 거기 반도 안 가면서 건너뛰다간 물에 빠져 죽죠. 그렇게 변연히 알면서도 건너뛰다가 빠져서 허덕거리는 거를 어떻게 하니까? 부처님 인들 어렵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살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생긴 게 참 고맙고요. 아무리 잘생겼든 못생겼든, 또 잘살든 못살든 '내가 이 세상에 낳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공부라도 하게끔 인연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운가. 우리가 수없이 돌아가면서 범의별 일이 다 생기고 그렇습니다. 돈 걱정도 없고 옷 걱정도 없고 먹는 거 걱정도 없고, 돈 쓸 때는 그냥 혁적 줘서 다 쓰고 이렇게 해서 기쁜 아이가 나가서 잘 이끌고 살 수 있을까요? 고생도 해 보고 배도 고프고 망치질도 해 보고, 그 아픔을 겪어 본 사람이라야 그 부하를 다 이끌고 살 수 있는 거죠.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남이 배고픈 걸 몰라요. 그것까지 생각 못하겠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한 번 죽을 거, 죽는다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아시죠. 언젠가 우리 스님네들이 날더러 '스님, 오래 사세요!' 그러기에 그랬어요. '사는 날까진 틀림없이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요. 아, 그러지 뭐라고 말할 해요, 그걸? '너희들이 오래 살라고 하니까 오래 살 거다.'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빨리 죽는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 못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생사도 벗어납니다. 그냥 열심히들 우리 해 봅시다. 아셨지요?

선법가를 불러야 하는 이유?

문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선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불교 텔레비전에서 선원 어린이회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법당에서 불교 교리 맞추기도 하고 단체 줄넘기도 하고 법회 하는 모습도 찍고 선법가 합창도 했답니다. 그런데 스님, 질문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 절에 다닐 때 어린이 합창단에 가입해서 찬불가를 많이 불렀는데요, 선원에서 또다시 선법가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자기 실상이 공이니까

공에다

모든 것을 놔버리세요

진실하게 믿고...

믿지 않으면 놓을 수 없어요

”

답 이 마음의 도리를 진실하게 알아야 해요. 합창단이면 그냥 합창단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을 같이 들어서, 주인공과 같이 들어서, 같이 돌아가는 걸 주인공이라고 하거든요. 배가 없는 것이 주인공이요, 배가 없는 것이 한마음이요, 배가 없는 것이 부처라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도리로 해서 참 진실하게 그 노래를 한마디 부를 때 우주 법계가 쩡하고 그냥 두루 같이 그 음파가 돌아갈 수 있다 이 소리지. 그러니 우리는 이 몸뚱이 가지고 한 철 사는 거, 이 몸뚱이 있을 때에 전력을 다해서 이 도리를 배워라 이거지. 이 몸뚱이 떨어진다던 지금 물질적으로 살던 그 의식이 남아서 몸뚱이 떨어져도 그 의식이 그냥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 보질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 의식만 남았어. 그래서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나를 때 다시 사람 되기가 극히 어렵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력을 다해서 하되 어린이들도 젊은 학생들도, 이 합창단에 들어서 활동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린이 노래 가사를 우리 스님네들이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곡은 다른 선생님들이 하더라도 이렇

게 스님네들이 가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그 가사가 법이 돼서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님네들이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도요. 예를 들면 그냥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내 마음에 꽃이 피었네.
두루두루 꽃이 피었네.
봄에 익는다면,
삼라만상 우주 법계
그리고 우리 생활면에 모두 선도자가 돼서
우리는 뿌리를 이어 가고 중용을 이어 가면서
앞으로 세세생생에 거룩한 길을 걸으리.

이러한 노래도 짓고 말아야. 그냥 모두 그렇게 해서 어린이가 불렀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짜로 세계의 모든 마음을 조절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법계의 아주 진짜 법이 되는 거지, 한마음으로 돼 주기 때문에. 그러니 열심히들 해 봐요.

그리고 내 마음의 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없다면 부처님 법도, 가톨릭교법도, 기독교 법도 다 없는 거야. 그런데 요새는 보면 꼭 타위에 꼬달려서들 찾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해! 기복으로 가서는 절대 나를 발견할 수가 없고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나한테 재료를 다 두고도 먹고 싶은 대로 해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람, 즉 말하자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없지. 그렇지?

인간으로 온 길에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해. 주인공을 믿고 모든 거 내 공부하는 거, 노래하는 거, 모든 내 행동 하나 하나 하는 거, 효도하는 거, 충성하는 거, 모든 것은 내 주인공에 있다! 내 주인공을 믿고 내 주인공에다가 맡겨 놓고, 급한 일이라도 내 주인공에다 탁 맡겨 놓고 '당신밖에 할 수 없어.' 하고선 뛰어라 이거야.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들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야.

여러분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를 자기기 못 믿어요. 상표는 믿어도. 종교의 이름이 상표예요. 상표는 믿어도, 또 형상은 믿어도 그런 거는 못 믿겠어요? 위대하다는 걸 보면 굽신굽신 절을 하고, 거지를 보면 탁 튀기고 고개를 반짝 들고선 그렇게 하는 그 습관도 좀 놔야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몸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전자에 수억급 광년을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얼마나 읊었고 얼마나 아팠던가? 그리고 그 진화를 시키느라고 내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그러니 그때의 내 모습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성숙하게 익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줄 알고 열심히들 해 보세요!

대한불교선밀종 임원 · 중도를 모십니다

대다수의 종단이 선교양종 이거나 밀종으로 이루어진 현실에 해동초조인 원효선사를 종조로 밀로 접수하여 선으로 둔수하는 선밀종을 창종 하고저 발원 하오니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라며 특히 한국의 전통적 불법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에 널리 알릴 선지식, 대덕스님과 인연 단기를 기원합니다.

- 입 중 안내 -

- ◆ 종 단 명 : 대한불교선밀종
- ◆ 종교단체등록 (37451-00292)
- ◆ 비영리법인고유번호 (513-82-65714)
- ◆ 총 본 산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 1동188 -7번지 관정사
- ◆ 연 락 처 : ☎ 054)976-0405 / FAX 054)976-4405
- ◆ 입중상담 : 010-3134-8484(원숙)

大韓佛敎 禪密宗
TEL 054)976-0405 / FAX 054)976-4405

www.sunmiljong.or.kr

석불, 목불, 동불, 소불, 전문 제작 신라불교 공예사



천수천왕목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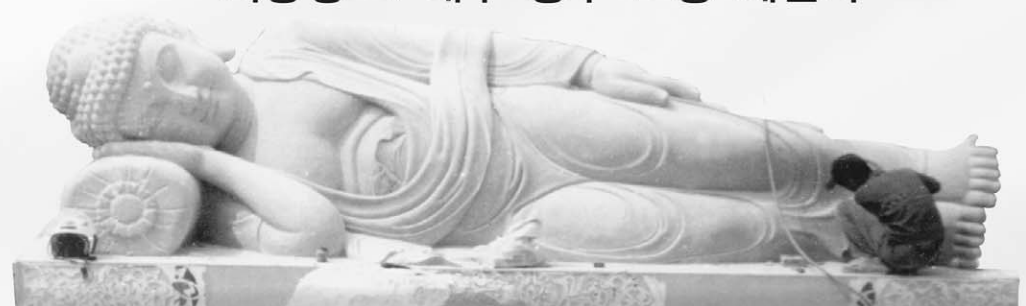


신라 불교 석물의 대표작 다보탑

시공장소: 대구 동구 도동 제현사



금강역사석조물



신라인의 장인 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 011-811-7771 · 016-9211-3330 / 팩스 : 053)981-5558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18 번지